

민주 “尹 인터뷰, 日 총리 말인줄... 무책임·몰역사 인식”

“일본에 100년 전 일로 무릎 꿇어라 할 수 없어” WP 발언 논란 국힘 ‘오역’ 주장에 “이번엔 국민 독해력 테스트 하나” 비판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한일관계 정상화와 관련해 “100년 전 일을 가지고 (일본에) ‘무조건 무릎 꿇어라’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 것을 두고 25일 여야가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굴욕외교라고 비난을 이어갔고, 국민의힘은 외교까지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다고 보호막을 쳤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일본 총리의 말인 줄 착각하고도 남을 만큼 매우 무책임하고 몰역사적 인식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또 “대선 후보 시절 이용수 할머니와 손가락을 걸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의 사과를 반드시 끌어내겠다’고 약속할 땐 언제고, 이제와 일본을 향해 ‘절대 무릎 꿇지 말라’고 애걸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과 같은 무능한 굴욕외교로는 결코 한일 관계를 평화와 번영의 동반자로 격상시킬 수 없음을 윤 대통령은 명심하라”며 “오역의 과거사를 미화하며 반성하지 않는 일본에 지을 수 없는 역사를 팔아 우리의 미래를 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정래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미국에 가기 전에 또 사고를 쳤다”며 “열반한 건 몰라서 다 아는 척하려는 데서 오는 열등감이 심리적으로 깔린 것 같다”고 비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언론사의 ‘오역’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도 비난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민주당을 향해 “영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오역을 가지고 실제 발언은 확인하지도 않은 채 반일 감정을 자극하고 나선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

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 국민에게 독해력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옳지 않은 일”이라며 “안보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하지만 이는 국민을 존중할 때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영문 번역 과정에서 주어가 빠진 것인데 야당이 집소봉대해 공격하고 있다’며 방어막을 쳤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익 앞에 여야 없다”는 평범한 진리가 대한민국 국회에서 실종된 현실이 너무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민주당은 외교까지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나쁜 관행에서 벗어나 무엇이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인지 다시 생각해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은 안보 위기 상황에서 한일 간 안보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며 “나머지 부분은 그 취지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발언 중 ‘무조건 무릎 꿇으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부분의 주어가 ‘일본’인데 오역으로 의미가 잘못 전달됐다고 해명했다.

김정재 의원은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윤 대통령은 ‘일본이 무조건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는데 ‘일본’이라는 주어가 해석에서 빠진 것 같다”며 “앞뒤 내용을 보면 과거사 문제는 현안이든 결국 소통을 해서 해결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대일굴욕대책위원회·강제동원 의원모임 의원들이 2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이 100년 전 역사 때문에 무릎을 꿇어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명계, 윤관석·이성만 탈당 압박

전대 돈 봉투 살포 주도 혐의...지도부, 정치혁신안 마련 속도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곤혹스러운 처지에 몰린 가운데 연루자로 지목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탈당 압박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조기 귀국하고 자신 탈당한 만큼 이제 돈 봉투 살포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두 사람의 탈당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억울하다는 입장과 함께 탈당의 사는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이 ‘결자해지’ 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가 출당이나 제명 같은 ‘용단’을 먼저 내려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하는 모양새다.

25일 민주당 지도부 인사는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송 전 대표가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조기 귀

국했으니 나머지 당사자들의 결자해지는 사실 정해진 수순”이라며 “민심은 민주당이 어떠한 조치를 하느냐를 지켜보고 있다. 당사자들의 딱한 사정은 알지만 온정주의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비명계는 이 대표를 거세게 압박하고 나섰다. 이원욱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법률적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 것이 아니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지금은 정말 지도부의 단호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전날 귀국한 송 전 대표는 과거 캠프 관계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상황 파악에 진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당 지도부는 불법 정치자금 근절을

위한 정치혁신안 마련에도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당 전략위원회가 혁신안을 만들고 있으며 이른 다음 주 초반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안에는 대의원 제도 폐지 등 파격적인 내용도 거론되고 있다.

당내 핵심 관계자는 “혁신안 발표는 윤관석, 이상만 의원의 탈당과 함께 발표될 것”이라며 “단호한 조치 없이 혁신안만 내놓는다면 여론의 눈총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전대 돈 봉투 사건이 송영길 전 대표, 윤관석·이상만 의원의 탈당과 자체 혁신안 등으로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당 및 정치 혁신안을 넘어 반성의 진정성을 담기 위해선 차기 총선에서 현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공천 혁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민주당 혁신의 계기가 돼야 한다”며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과감한 혁신은 위기 극복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오역 논란에...WP,尹 인터뷰 원문 공개

‘저는’ 주어 명시된 녹취록 트위터에 게재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 발언 보도를 둘러싸고 여론 일각에서 오역 논란이 제기되자 인터뷰를 한 당사자인 WP 기자가 원문 녹취록을 공개했다.

WP 도쿄·서울지국장인 미셸 예 히리 기사는 25일 자신의 트위터에 “번역 오류의 문제와 관련하여 인터뷰 녹음본을 다시 확인해 봤다”며 “여기에 정확한 워딩이 있다”고 그 내용을 공개했다.

리 기사가 첨부한 윤 대통령 발언 녹취록에는 “정말 100년 전의 일들을 가지고 지금 유럽에서는 전쟁을 맞닥뜨릴 거고 그 참혹한 전쟁을 겪어오 미래를 위해서 전쟁 당사국들이 협력하고 하는데 100년 전에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어라라고 하는 이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돼 있다.

이는 WP 기사에서 생략된 주어가 ‘일본’인데 WP가 ‘나(윤 대통령)’로 오역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 기사가 실제 발언에 ‘저는’이라는 주어가 있었다며, 오역 논란에 정면 반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리 기사는 WP가 대선 직전인 지난해 2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서면 인터뷰 기사에서 성평등 문제에 취약하다는 비판과 관련해 윤 후보가 “페미니즘을 이해하는 많은 방식이 있다. 불평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나는 페미니스트”라고 언급했다고 보도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공보단이 “행정상 실수로 전달된 축약본을 보고 쓴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공식 발언이 아니라고 해명하자, 당시에도 인터뷰 원문을 공개하며 정면으로 반박한 바 있다. /연합뉴스

송영길 “최대한 빨리 검찰 출석하겠다”

檢, 출금 조치...민주 탈당계 제출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최대한 빨리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송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송 전 대표는 되도록 빨리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한

다. 이르면 26일 출석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변호사를 통해 검찰과 출석 일시를 조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검찰이 자신을 출국금지 조치하면서 피의자로 전환한 것이 알려지자 송 전 대표가 조속히 검찰에 나가 관련 의혹을 소명하기로 마음을 굳혔다는 게 이 관계자 설명이다.

지난 22일 프랑스 파리 현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탈당 의사를 밝힌 송 전 대표는 이날 민주당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검찰은 금품 살포의 최종 수혜자인 송영길(60)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송 전 대표를 출국금지했다. 송 전 대표가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이라는 점과, 사건 수사 초기 귀국 여부에 모호한 입장을 보이다가 당의 요청이 빚어진 이후 귀국한 사정 등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임대차 보증금·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법인회사 신용상태 파악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사·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 건물 리모델링
- 칼라강판 지붕공사
-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 전원주택신축
- 공장신축
- 징크판넬시공
- 창호(샷시)교체
- 농막
- 옥상스틸방수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